

[ 종교·복지 ]

■ 전남도 장애인복지관 '패션모델과 일촌맺기'

패션모델된 장애인들  
“워킹·무대매너 배우요”

나주시 삼영동에 위치한 전라남도 장애인 복지관(관장 장영환). 평소 한적하던 이곳이 다음달 중순경 열리는 '패션쇼' 준비를 앞두고 분주해졌다.

매주 수요일 2시간 워킹과 무대 매너, 댄스, 베이 크업 등을 배우는 '패션모델과 일촌 맺기'(이하 일촌맺기) 수업이 시작되는 것. 수업을 듣는 장애인들은 비록 몸놀림은 부자연스러웠지만 얼굴에는 활짝웃음이 가득 차 있었다.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일촌맺기' 수업에는 정신지체 1~3급 장애인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나이는 20대부터 30대까지 다양하다. 남성들의 참여율도 높아 남성이 13명, 여성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 수업은 장애인들에게 단순한 흥밋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패션쇼'라는 최종의 목표가 있던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세교정, 포즈연기, 댄스 등 패션 강의를 통해 사회성을 높이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패션쇼에 필요한 의상은 광주·전남지역 의상학과 학생들의 졸업작품

전 의상을 빌릴 예정이다. 수업에 기획한 정영일(28) 사회복지사는 “장애인들이 직접 모델로 나서 '우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일깨워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이한 점은 강사로 나서는 이들이 '전문가'가

정신지체자 20명 참여  
자신감 키우기 수업  
다음달 패션쇼 준비도

아닌 일반 학생들이라는 것. 복지관 측은 수업 시작부터 수업 관련 전공 학생들만을 일일 강사로 초빙하고 있다. 지금까지 광주여대 스타유디스학과(워킹 및 자세교정, 에티켓), 동아리대매출학과(마술 및 무대 매너), 동신대 댄스 동아리 스타프



전라남도 장애인 복지관의 '패션모델과 일촌맺기'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 학생이 메이크업을 받고 있다. /워킹기자 jrwi@kwangju.co.kr

(댄스)가 복지관을 찾았다. 전문 강사가 아니기에 서투른 점은 있지만 장애인들과 친밀한 관계(일촌)를 맺고 있다고 정씨는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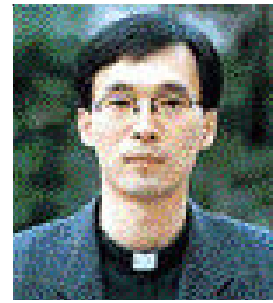
4번째 수업인 지난 20일에는 동신대 뷰티미용학과와 류혜선(20)양과 오주리(21)양이 강사로 나섰다. 모델로 나선 정현숙(22·정신지체 3급)씨에게 직접 메이크업 시연을 해보이며 설명을 하는 이들은 전문 강사 못지 않은 열정을 자랑했다.

류 씨는 “처음에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한다는 것이 조금 두렵기도 하고 내가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됐는데 실제로 해보니 그런 편견이 사라졌다”며 “전문 용어가 많은 만큼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한다”고 귀띔했다.

모델 정 씨는 완성된 메이크업을 보고 난 뒤 “너무 예쁘고 기분이 좋다”며 만족해했다. 정씨의 메이크업이 끝나자 남성들을 대상으로 무대 메이크업이 이뤄졌다.

박은희(36) 사회복지사는 “앞으로 쇼 준비와 물품구입, 공연 리허설 등으로 더욱 바빠지겠지만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음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복지관 측은 이번 프로그램을 토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일촌맺기' 프로그램을 세분화해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문의 061-332-4104 /곽성정기자 ksj@kwangju.co.kr

종교 칼럼



윤 빈 호 <곡성성당 주임신부>

'맘몬'의 꼬임

<돈·재물>

해방되길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철학자 혹은 종교인이 하는 질문은 아니다. 실은 나의 문제이다. “나는 누구인가?”

혹자가 이야기 한 것처럼 인간(人間)이란 한 자어는 사람 ‘人’에 사이 ‘間’이 합쳐진 글자로서 ‘人間’은 인간들 사이에서만 인간일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그 관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사람을 잘 사귀어야 한다는 말이나,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생겨났는지 모른다.

혹시나 ‘현대 한국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무슨 답변이 나올까? 제테크, 세테크, 신도시 분양, 로또 복권, 각종 경품권 그리고 사행성 오락들에 대한 뉴스를 매일 접하다 보면 혹시 우리 존재 이유가 돈만 벌기 위하여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 돈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이미 가있기 때문이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가 신문과 방송을 채웠다. 게임기 100여대가 한달 벌어들이는 돈이 30억이란다.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일인가? 일반 시민이 평생 벌어도 만지지 못하는 돈을 한달에 벌 수 있다니 돈 놓고 돈 먹기다.

대박을 터트리길 원하는 꿈을 안고 오늘도 오락실로 향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박을 터트리길 위하여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오늘도 게임장을 열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한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도박공화국’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오래전에 충고하시길 “재물이 있는 곳의 너의 마음이 있다” 하셨다. 그렇다면 혹시 나의 존재 이유가 돈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고 싶다. 달콤한 ‘맘몬’ (교회에서 돈이나 재물을 가리키는 말)에 피어 그 맘몬을 좇아 살아가는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맘몬보다 더 위대한 분이 계시고 그리고 맘몬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들려주고 싶다. 그래서 그들이 맘몬의 꼬임에서 해방되길 바란다.

종교·복지 단신

도법스님 초청 열린 특강

○...(사)자비신행회 부설 재가 화엄학원이 오는 30일 오후 2시 30분 광주시 동구 내남동 자비신행회 2층 강당에서 ‘도법스님 초청 열린 특강’을 개최한다. 생명평화발달순례를 3년째 계속하고 있는 도법스님은 이번 특강에서 ‘생명평화의 길’을 주제로 생명평화와 탁발순례를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문의 062-234-0090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대민)이 오는 29일 오후 1시 광주장애

한가위 맞이 노래자랑

인종합복지관내 체육관 2층에서 ‘한가위 맞이 노래자랑’을 실시한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민과 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리는 장을 마련하고 장애인들에게 문화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노래자랑은 15명의 참가자가 열린 경연을 펼치게 된다.

1등에게는 30만원 등 수상이 5명에게 70만 원 상당의 상품이 지급되며 대회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증정한다. 문의 062-513-0977

뮤지컬 ‘내 영혼아...’ 공연

○...광주 서림교회(목사 송재식)가 오는 30일(오후 3시·7시 30분) 광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서림60주년기념 뮤지컬 ‘내 영혼아 찬양하라’ 공연을 펼친다.

예수의 고난과 부활을 다룬 이번 공연은 예수 역에 류재팔, 유다 역에 양동성, 빌라도 역에 조정구 씨 등이 출연한다. 서림 핸드벨 합창단이 찬조출연해 ‘나같은 죄인 살리신’, ‘오 신실하신 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를 들려준다. 문의 062-525-5252

‘공양미 삼백석 모으기’ 노인 800명 개안수술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라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박흥석·사진)가 지난 2002년부터 실시한 ‘공양미 삼백석 모으기’ 운동을 통해 저소득층 노인 800명에게 무료 개안 수술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동모금회와 곡성심정축재추진위원회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 운동은 모금 운동을 통해 백내장과 녹내장, 당뇨성 망막증 등 안구 질환을 가진 노인들에게 무료 시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공동모금회는 다음달 20일까지 ‘공양미 삼백석 모으기’ 운동을 전개한다. 문의 062-651-0222 /곽성정기자 ksj@kwangju.co.kr



환을 가진 노인들에게 무료 시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공동모금회는 다음달 20일까지 ‘공양미 삼백석 모으기’ 운동을 전개한다. 문의 062-651-0222 /곽성정기자 ksj@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Gwangju Biennale and 25th Anniversary of Gamsung Hotel. Includes text: '편안하고 깨끗한 고급객실! 그 명성 그대로', '25년 고객사랑! 더 큰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건물매도' (Building Sale) and '모든업종 최고요지' (Best location for all businesses). Contact: 010-4610-3763.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Daedong Samil Real Estate). Services include model, motel, and various buildings. Contact: 010-4610-3763.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일가공인중개사' (Real Estate Broker). Services include house and apartment sales. Contact: 010-4610-3763.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LC타워(주)' (LC Tower Co.). Services include land and building sales. Contact: 010-4610-3763.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21세기부동산컨설팅(주)' (21st Century Real Estate Consulting Co.). Services include investment and development. Contact: 010-4610-3763.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현대공인중개사' (Hyundai Real Estate Broker). Services include house and apartment sales. Contact: 010-4610-3763.